

건강을 지키는 현장

치매노인과 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국내 최초로 치매노인 관리에 나선 서울 북부 노인종합 복지관의 “치매탁로소”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건강관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복지 대책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치매 노인의 관리 문제는 노인 복지 측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양로원 시설도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우리의 실정에서 이 치매노인을 위한 복지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서 지난 1월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시 북부노인종합복지관(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중계 9단지 내)에서 치매탁로소(痴呆託老所)를 열어,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서울시 거주 치매노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치매탁로소의 개소 의의와 이용방법을 소개한다.

● 국내 최초의 치매탁로소

국내 최초의 이 치매탁로소(痴呆託老所)가 문을 연 것은 지난 1월, '91년부터 매달 1회씩 가져 온 치매·가족 모임에서, 치매 노인을 전문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장소를 원하는 가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외국에는 노인을 위한 치매병원이나 요양원이 많은데 반해 우리나라에는 치매병원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유료양로원에서조차 치매 노인은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서 삼성재단의 후원으로 문을 열게 된 것이 저희 치매탁로소입니다.』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치매탁로소의 담당 간호사 김정자씨의 설명이다.

치매탁로소는
치매노인의
재활과, 가족들의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문을 열었다.



● 치매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

치매탁로소에서는 치매노인의 재활을 돕는 것은 물론 가족들의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덜어주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특히 치매노인들의 심리적 치료에 중점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다.

즉, 치매노인의 가장 큰 특성이 기억장애인 점을 감안하여, 일상적인 생활이나 정서적인 훈련을 함으로써 더이상 치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건강을 지키는 현장

록 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대략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미술, 레크리에이션, 말과 기억퀴즈 게임, 포크댄스·산책·쇼핑·작업요법 등으로, 치매노인 한사람당 한명의 관리자가 교육하고 있다.

한편 치매탁로소에서는 작업치료사, 간호사, 레크리에이션 강사, 사회사업가 등의 전문가 외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치매노인을 위해 일하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치매노인이면 이
탁로소를 이용할
수 있다.



● 중증자를 위해 가정방문도

지금까지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노인은 50명 정도.

탁로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문을 연다. 하루 최대 이용 가능 인원은 10명이며, 현재 8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자를 위해 매주 금요일에 직접 가정방문을 하여 가족상담과 가정요법을 실시한 후 치매노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 서울시 거주 50세이상 치매노인 대상

한편, 치매탁로소의 이용방법을 김경자씨는 이렇게 설명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치매노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용료는 점심과 간식비를 포함해서 하루 5천원입니다. 하지만 거택보호자는 무료입니다.』

탁로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치매노인이 있는 가족은 일단 방문신청을 해야 한다. 노인의 상태를 점검한 후 탁로소 이용을 결정하게 된다. 6개월을 1주기로 해서 매일 이 탁로소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주 1회로 제한하고 있다. 탁로소의 전화번호는 (02)948-1637이다.

치매탁로소의
증설,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복지정책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 더 많은 치매탁로소가 생겼으면……

개소 후 8개월여 동안 운영되어온 치매탁로소는 그러나 아직까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처음 시도한 일인 만큼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되고, 위치가 노원구에 있는 관계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멀리서부터 와야 하는 불편함도 탁로소의 직원들이나 노인·가족 모두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김경자씨를 비롯한 탁로소 자원봉사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치매탁로소가 곳곳에 마련되어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복지정책 측면에서의 지원도 확대·정착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